

내일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4주기… 광주·전남 친노 현주소는

정치적 자생력 못갖춰 주도권 상실

이용섭·장병완 의원, 민형배 구청장 외 활동 미미

민심과 소통부족… 지역정치권 뿌리 못내리고 위축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4주기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지난 10년 동안 아연의 중심축 역할을 했던 친노(친노무현) 세력이 쇠퇴와 재도약의 갈림길에 서 있어 주목받고 있다.

이런 가운데, 광주·전남을 중심으로 하는 '호남 친노'는 지역 정치권에서 사실상 주도권을 상실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우선 노전 대통령과 함께 등장했던 친노 진영은 그 동안의 정치적 부침에도 불구하고 끈질긴 자생력을 보여주고 있다는 평가다.

참여정부 직후인 지난 18대 총선과 17대 대선에서 대체로 친노 세력은 사실상 정치적 폐족이 되었으나 노 전 대통령 서거를 계

기로 지난 2010년 지방선거를 통해 다시 부활했다.

당내 당권파와 손을 잡은 친노 진영은 민주당의 주류로 등극했으나 지난 19대 총선, 18대 대선에서 다시 패배, 책임론 등을 직면하며 지난 5·4 전당대회에서 김한길 대표 등 비주류에 크게 밀리면서 정치적 외래 위기 예상하고 있는 형편이다.

실제로 유시민 전 의원이 정계를 은퇴하고 문성근 전 대표 권한대행이 탈당하는가 하면 이해찬, 한명숙 의원 등 원로 그룹도 정치적 영향력을 크게 촉진된 상황이다. 여기에 안철수 의원이 '새정치'를 화두로 친노 진영이 장악했던 시민 정치 세력을 잠식하고 힘든 상황이다.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친노 진영은 아직까지 시민사회 진영에 상당한 영향력이 있는데다 문재인 의원, 안희정 충남지사, 이광재 전 강원지사 등이 정치적 비전을 갖추고 있는 인사들과 10여명에 이르는 참여정부 출신 국회의원 등 만만치 않은 인적 자원을 확보하고 있어 재도약의 가능성이 아직까지 남아 있다는 관측이다.

반면 노풍(노무현 바람)에 편승했던 '호남 친노 진영'은 정치적 자생력을 갖추지 못하고 지역 정치권에서 주도권을 상실했다는 평가다.

근본적으로 친노 진영의 핵심에 자리 잡지 못한 점도 있지만 정치적 역량 부족이 주요 요인으로 꼽힌다. 우선, 청와대 수석과 비서관을 지난 지역 정치권 인사를 가운데 지역 정치권에 뿌리를 내린 경우는 찾아보기 힘든 상황이다.

청와대 비서관 출신의 민형배 광산구청장 등이 겨우 명함을 내밀고 있는 수준이다. 여기에 협약 국회의원 가운데 친노 인사는 찾기 어렵다. 노 전 대통령 탄핵 후 폭풍에 휩쓸려 열린우리당 간판으로 국회에 진출했던 의원들이 다수 있지만 최근에는 오히려 친노 진영과 거리를 두는 분위기다. 참여정부에서 장관을 지낸 이용섭, 장병완 의원이 벤진노로 분류되고 있지만 관료라는 특성과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친노 핵심으로 분류됐던 서갑원 전 의원은 지난해 사면 복권을 통해 권도중래를 다짐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지역 친노 인사들이 노풍에 편승했지만 노무현 정신을 바탕으로 지역 정치권에 뿌리를 내리지 못했다"며 "이는 지역 민심과의 소통 등 지역 친노 인사들의 역량 부족에 기인한 측면이 크다"고 말했다. /김동욱기자 tuim@kwangju.co.kr

광주 YMCA 무진관에

노 전대통령 추모분향소

고(故) 노무현 대통령 서거 4주기를 맞아 22일 광주 YMCA 무진관에 추모분향소가 마련된다.

김대중·노무현 대통령 기념공원위원회는 광주·전남 시·도민과 함께 노무현 대통령의 업적과 그 뜻을 기리기 위해 22일부터 23일 까지 추모분향소를 마련한다고 19일 밝혔다.

광주 YMCA 무진관에 마련될 추모분향소는 22일 오후 3시부터 23일 오후 6시까지 운영돼 시민들과 각계의 합동 분향이 이어질 전망이다.

25일에는 광주 동구 금남로에서 추모 분화제도 열린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민주당의 길을 물습니다'

민주당의 정책비전과 의제 토론회 '민주당의 길을 물습니다!'가 민주정책연구원 주최로 21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렸다.

/연합뉴스

한전KDN 축소 방지 법개정 촉구 건의문 전달

전남도, 새누리·민주당에

정부·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소프트웨어 사업에 참여할 수 없게 됐다.

전남도는 "특수한 공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기업에 대해 참여를 제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일부개정 법률안에 대한 건의문 전달을 시작으로 국회를 방문할 계획이다.

최근 개정된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에 따라 한전KDN이 상호 출자제한 규정에 걸려

졌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손학규 싱크탱크, 정치아카데미 개설

손 8월 귀국 행보 주목

민주당 손학규 상임고문의 싱크탱크 역할을 해온 '동아시아미래재단(이하 재단)'이 손 고문의 철학과 비전에 공감하는 후진을 양성하기 위해 정치 아카데미를 개설한다.

재단측은 21일 '동아시아 미래 아카데미'라는 이름 아래 3개월 과정으로 겪어야 할 아카데미는 내년 6월 지방선거 전까지 모두 4차례 마련된다고 밝혔다.

현재 독일에 체류하고 있는 손 고문은 오는 8월초에 귀국할 예정이어서 향후 손 고문의 행보와 관련해서도 아카데미 개설이 눈길을 끈다.

강사진도 화려하다. 최장집 고려대 명예 교수와 임동원 전 통일부 장관, 김병준 전 청와대 정책실장, 김상곤 경기도 교육감 등이 정치와 남북관계, 지방자치 행정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해 강의한다. 특히 무소속 안철수 의원 측의 핵심 관계자인 장성하 고려대 교수도 강사로 나서 '경제민주화와 한국경제의 발전 방향'에 대해 강의할 예정이다.

손 고문은 오는 8월 17일 마지막 강의에 강사로 나서 '저녁이 있는 삶을 통한 대한민국의 미래'에 대해 논한다. 이에 앞서 8월 10~11일 열리는 워크숍에도 참가해 수강생들과 대화의 시간을 갖는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손학규 싱크탱크, 정치아카데미 개설

손 8월 귀국 행보 주목

민주당 손학규 상임고문의 싱크탱크 역할을 해온 '동아시아미래재단(이하 재단)'이 손 고문의 철학과 비전에 공감하는 후진을 양성하기 위해 정치 아카데미를 개설한다.

재단측은 21일 '동아시아 미래 아카데미'라는 이름 아래 3개월 과정으로 겪어야 할 아카데미는 내년 6월 지방선거 전까지 모두 4차례 마련된다고 밝혔다.

현재 독일에 체류하고 있는 손 고문은 오는 8월초에 귀국할 예정이어서 향후 손 고문의 행보와 관련해서도 아카데미 개설이 눈길을 끈다.

강사진도 화려하다. 최장집 고려대 명예 교수와 임동원 전 통일부 장관, 김병준 전 청와대 정책실장, 김상곤 경기도 교육감 등이 정치와 남북관계, 지방자치 행정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해 강의한다. 특히 무소속 안철수 의원 측의 핵심 관계자인 장성하 고려대 교수도 강사로 나서 '경제민주화와 한국경제의 발전 방향'에 대해 강의할 예정이다.

손 고문은 오는 8월 17일 마지막 강의에 강사로 나서 '저녁이 있는 삶을 통한 대한민국의 미래'에 대해 논한다. 이에 앞서 8월 10~11일 열리는 워크숍에도 참가해 수강생들과 대화의 시간을 갖는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손학규 싱크탱크, 정치아카데미 개설

손 8월 귀국 행보 주목

민주당 손학규 상임고문의 싱크탱크 역할을 해온 '동아시아미래재단(이하 재단)'이 손 고문의 철학과 비전에 공감하는 후진을 양성하기 위해 정치 아카데미를 개설한다.

재단측은 21일 '동아시아 미래 아카데미'라는 이름 아래 3개월 과정으로 겪어야 할 아카데미는 내년 6월 지방선거 전까지 모두 4차례 마련된다고 밝혔다.

현재 독일에 체류하고 있는 손 고문은 오는 8월초에 귀국할 예정이어서 향후 손 고문의 행보와 관련해서도 아카데미 개설이 눈길을 끈다.

강사진도 화려하다. 최장집 고려대 명예 교수와 임동원 전 통일부 장관, 김병준 전 청와대 정책실장, 김상곤 경기도 교육감 등이 정치와 남북관계, 지방자치 행정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해 강의한다. 특히 무소속 안철수 의원 측의 핵심 관계자인 장성하 고려대 교수도 강사로 나서 '경제민주화와 한국경제의 발전 방향'에 대해 강의할 예정이다.

손 고문은 오는 8월 17일 마지막 강의에 강사로 나서 '저녁이 있는 삶을 통한 대한민국의 미래'에 대해 논한다. 이에 앞서 8월 10~11일 열리는 워크숍에도 참가해 수강생들과 대화의 시간을 갖는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손학규 싱크탱크, 정치아카데미 개설

손 8월 귀국 행보 주목

민주당 손학규 상임고문의 싱크탱크 역할을 해온 '동아시아미래재단(이하 재단)'이 손 고문의 철학과 비전에 공감하는 후진을 양성하기 위해 정치 아카데미를 개설한다.

재단측은 21일 '동아시아 미래 아카데미'라는 이름 아래 3개월 과정으로 겪어야 할 아카데미는 내년 6월 지방선거 전까지 모두 4차례 마련된다고 밝혔다.

현재 독일에 체류하고 있는 손 고문은 오는 8월초에 귀국할 예정이어서 향후 손 고문의 행보와 관련해서도 아카데미 개설이 눈길을 끈다.

강사진도 화려하다. 최장집 고려대 명예 교수와 임동원 전 통일부 장관, 김병준 전 청와대 정책실장, 김상곤 경기도 교육감 등이 정치와 남북관계, 지방자치 행정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해 강의한다. 특히 무소속 안철수 의원 측의 핵심 관계자인 장성하 고려대 교수도 강사로 나서 '경제민주화와 한국경제의 발전 방향'에 대해 강의할 예정이다.

손 고문은 오는 8월 17일 마지막 강의에 강사로 나서 '저녁이 있는 삶을 통한 대한민국의 미래'에 대해 논한다. 이에 앞서 8월 10~11일 열리는 워크숍에도 참가해 수강생들과 대화의 시간을 갖는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손학규 싱크탱크, 정치아카데미 개설

손 8월 귀국 행보 주목

민주당 손학규 상임고문의 싱크탱크 역할을 해온 '동아시아미래재단(이하 재단)'이 손 고문의 철학과 비전에 공감하는 후진을 양성하기 위해 정치 아카데미를 개설한다.

재단측은 21일 '동아시아 미래 아카데미'라는 이름 아래 3개월 과정으로 겪어야 할 아카데미는 내년 6월 지방선거 전까지 모두 4차례 마련된다고 밝혔다.

현재 독일에 체류하고 있는 손 고문은 오는 8월초에 귀국할 예정이어서 향후 손 고문의 행보와 관련해서도 아카데미 개설이 눈길을 끈다.

강사진도 화려하다. 최장집 고려대 명예 교수와 임동원 전 통일부 장관, 김병준 전 청와대 정책실장, 김상곤 경기도 교육감 등이 정치와 남북관계, 지방자치 행정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해 강의한다. 특히 무소속 안철수 의원 측의 핵심 관계자인 장성하 고려대 교수도 강사로 나서 '경제민주화와 한국경제의 발전 방향'에 대해 강의할 예정이다.

손 고문은 오는 8월 17일 마지막 강의에 강사로 나서 '저녁이 있는 삶을 통한 대한민국의 미래'에 대해 논한다. 이에 앞서 8월 10~11일 열리는 워크숍에도 참가해 수강생들과 대화의 시간을 갖는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손학규 싱크탱크, 정치아카데미 개설

손 8월 귀국 행보 주목

민주당 손학규 상임고문의 싱크탱크 역할을 해온 '동아시아미래재단(이하 재단)'이 손 고문의 철학과 비전에 공감하는 후진을 양성하기 위해 정치 아카데미를 개설한다.

재단측은 21일 '동아시아 미래 아카데미'라는 이름 아래 3개월 과정으로 겪어야 할 아카데미는 내년 6월 지방선거 전까지 모두 4차례 마련된다고 밝혔다.

현재 독일에 체류하고 있는 손 고문은 오는 8월초에 귀국할 예정이어서 향후 손 고문의 행보와 관련해서도 아카데미 개설이 눈길을 끈다.

강사진도 화려하다. 최장집 고려대 명예 교수와 임동원 전 통일부 장관, 김병준 전 청와대 정책실장, 김상곤 경기도 교육감 등이 정치와 남북관계, 지방자치 행정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해 강의한다. 특히 무소속 안철수 의원 측의 핵심 관계자인 장성하 고려대 교수도 강사로 나서 '경제민주화와 한국경제의 발전 방향'에 대해 강의할 예정이다.

손 고문은 오는 8월 17일 마지막 강의에 강사로 나서 '저녁이 있는 삶을 통한 대한민국의 미래'에 대해 논한다. 이에 앞서 8월 10~11일 열리는 워크숍에도 참가해 수강생들과 대화의 시간을 갖는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손학규 싱크탱크, 정치아카데미 개설

손 8월 귀국 행보 주목

민주당 손학규 상임고문의 싱크탱크 역할을 해온 '동아시아미래재단(이하 재단)'이 손 고문의 철학과 비전에 공감하는 후진을 양성하기 위해 정치 아카데미를 개설한다.

재단측은 21일 '동아시아 미래 아카데미'라는 이름 아래 3개월 과정으로 겪어야 할 아카데미는 내년 6월 지방선거 전까지 모두 4차례 마련된다고 밝혔다.

현재 독일에 체류하고 있는 손 고문은 오는 8월초에 귀국할 예정이어서 향후 손 고문의 행보와 관련해서도 아카데미 개설이 눈길을 끈다.

강사진도 화려하다. 최장집 고려대 명예 교수와 임동원 전 통일부 장관, 김병준 전 청와대 정책실장, 김상곤 경기도 교육감 등이 정치와 남북관계, 지방자치 행정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해 강의한다. 특히 무소속 안철수 의원 측의 핵심 관계자인 장성하 고려대 교수도 강사로 나서 '경제민주화와 한국경제의 발전 방향'에 대해 강의할 예정이다.

손 고문은 오는 8월 17일 마지막 강의에 강사로 나서 '저녁이 있는 삶을 통한 대한민국의 미래'에 대해 논한다. 이에 앞서 8월 10~11일 열리는 워크숍에도 참가해 수강생들과 대화의 시간을 갖는다.

/박지경기자 jkpark@kw